통일 칼럼

러, 우러전 北 미사일 사용… 북한, 최대 5만명 파병

정 복 규
논설위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러 군사협력 확대가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러시아가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데 이어,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도 최대 5만 명에 달할 거라고 했다.

우리 정부를 향해 방공망 지원도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북한군이 전투 경험을 쌓고 무기 성능까지 개선하는 게 우리 안보에 적지 않은 부담이란 건 분명해 보인다.

러시아군과 함께 훈련 중인 북한군의 모습을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텔레그램 채널이 최근 영상을 공개했다. 이 채널은 북한군이 러시아의 새로운 돌격 작전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영상이 언제, 어디에서 촬영됐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전쟁 개입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연일 경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1년 만에 다시 사용해 자국의 민간인 거주 지역을 공격했다고 주장한 젤렌스키 대통령이다.

지난 11일에도 자포리자 지역에 북한산 탄도미사일, KN-23이 떨어졌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또, 북한이 90명 규모의 미사일 부대를 탄도미사일 40기와 함께 러시아 보로네시주에 배치하기 시작했고, 향후 최대 120발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추가 파병 규모도 당초 주장했던 3만명을 넘어 최대 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가 연일 북한군의 위협을 부각하는 것은, 방공망을 비롯한 한국의 안보 지원을 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실제 러시아가 지난 5일 탄도미사일 24발과 극초음속 미사일 4발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발사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중 단 1발도 요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측은 대규모 북한군 투입과 무기 지원은 잠재적으로 한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방공망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방산물자는 국내법과 정책에 따라 제공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자체 방위 수요는 물론 러시아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국 무기의 성능을 실전에서 검증하고, 그 결과를 무기 개발에 다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2023년 말부터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공급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북한산 미사일의 정확도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 6일과 12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공급할 미사일의 개량 시험과 관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은 이 같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례적으로 관련 보도를 내놓지 않고 있다.

기고문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서 도사리는 폭염 속 전기화재 위험… 플러그 뽑는 순간 안전 커진다

김 두 철
완산소방서
대응예방과
소방령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재난문자를 여러번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폭염 장기화에 따른 전기화재 예방 요령 알림'이라는 주제로 △실외기 주변 가연물 및 문어발식 콘센트 금지 △과열 시 중단 △손상된 전선 교체 △사용 후 플러그 뽑기 등의 내용이 반복적으로 안내되고 있다.

이와 같은 메시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 만큼, 폭염 속 전기화재 위험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 도사리고 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전기와 함께 생활한다. 휴대전화를 충전하고, 전기밥솥으로 식사를 준비하며,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날에는 냉방기기로 쾌적한 환경을 만든다.

이처럼 전기는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필수적인 에너지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전기제품의 이상 징후를 방치하면 편리함을 주던 전기가 한순간에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과거 화재 현장에 출동했을때 콘센트 주변이 검게 그을리거나 멀티탭이 녹아 있는 모습을 자주 마주하곤 했다. 전선이 벗겨져 있거나 플러그와 콘센트가 변색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흔적은 화재가 발생한 뒤 현장에서 발견되지만, 어쩌면 화재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전기화재는 반드시 눈에 보이는 불꽃과 함께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콘센트나 플러그에서 열이 느껴지거나 타는 냄새가 나는 경우, 스위치를 켤 때 불꽃이 튀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점검해야 한다.

또한 차단기가 반복해서 내려가는 현상도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전기설비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차단기를 계속 임의로 올리기보다는 전기 전문가의 점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여름철에는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전기화재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에어컨 실외기 주변에 종이상자나 폐기물 등 가연물을 쌓아두면 열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소비전력이 큰 냉방기기나 전열기구는 가급적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해야 한다. 손상된 전선이나 변형된 플러그는 임시로 고쳐 쓰지 말고 즉시 교체해야 한다.

전기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안전수칙 없이 사용할 때 위험해지는 에너지다. 전기화재 예방은 거창한 점검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폭염이 이어지는 올여름, 재난안전문자의 안내를 한번 더 확인하고 집 안팎의 전기설비를 점검해 보자. 오늘의 작은 실천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사 설

KDI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 3.2%"

국책연구기관 KDI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기존 전망보다 높여 잡았다. 예상보다 높은 반도체 경기 호황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올해 GDP 성장률이 3.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5월에 내놓은 전망치 2.5%보다 0.7%p 높아진 수치로, 지난달에 발표된 정부 전망치 3% 보다도 높다.

KDI가 전망치를 높인 건 반도체 때문이다. AI 투자 확대로 해외 반도체 수요가 예상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수출과 국내 설비 투자의 호조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수출의 경우 미국의 관세 조치에도 불구하고, 올해 8.7%, 내년에도 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또 설비 투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올해 7.9%, 내년에도 7%가량 증가할 것으로 내다 봤다.

우리 경제와 밀접한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는 올해와 내년 모두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DI는 다만 우리 경제 성장이 고용 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에 집중돼 체감 경기로 충분히 확산되지는 못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국제 반도체 수요 변화에 따라 경제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올해 2.7%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뒤 내년에는 2.2%로 축소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는 11만 명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내수 개선세가 파급되며 20만명으로 늘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15일 치러진 민주 전당대회 호남 경선

그간 박빙 승부였던 민주당 대표 선거, 지난 15일 호남에선 김민석 후보가 과반 득표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권리당원 33%가 집중된 호남은 이번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였다. 앞선 충청권, 영남권, 강원·제주 지역 투표 결과는 46.01%를 득표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44.53%)를 근소하게 앞서왔다.

후보들은 자신이 호남 발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전남광주를 대체 불가한 새로운 산업의 토대로 만들어내겠다는 의견,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청래의 추진력과 돌파력, 속도전으로…, AI 메가프로젝트는 이재명의 꿈이자 호남의 꿈이고 김민석의 꿈이라는 등 호남 발전을 강조했다.

호남의 선택은 김민석 후보의 과반 득표, 정청래 후보와 25%p 가까운 차이로 1위를 했다. 두 후보의 누적 득표율은 14%p 차이로 벌어졌다. 상대 후보의 약점을 파고드는 신경전, 호남에서도 치열했다.

왜 자기 정치에 계파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을 흔드냐고 했다. 의리도 지켜본 사람이 지킵니다, 한 번 배신하면 또 배신한다라고도 했다.

당청 갈등으로는 안된다,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당청 일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선거판에서는 의례히 상대를 깎아내리고 자신을 부각시키는 일이 다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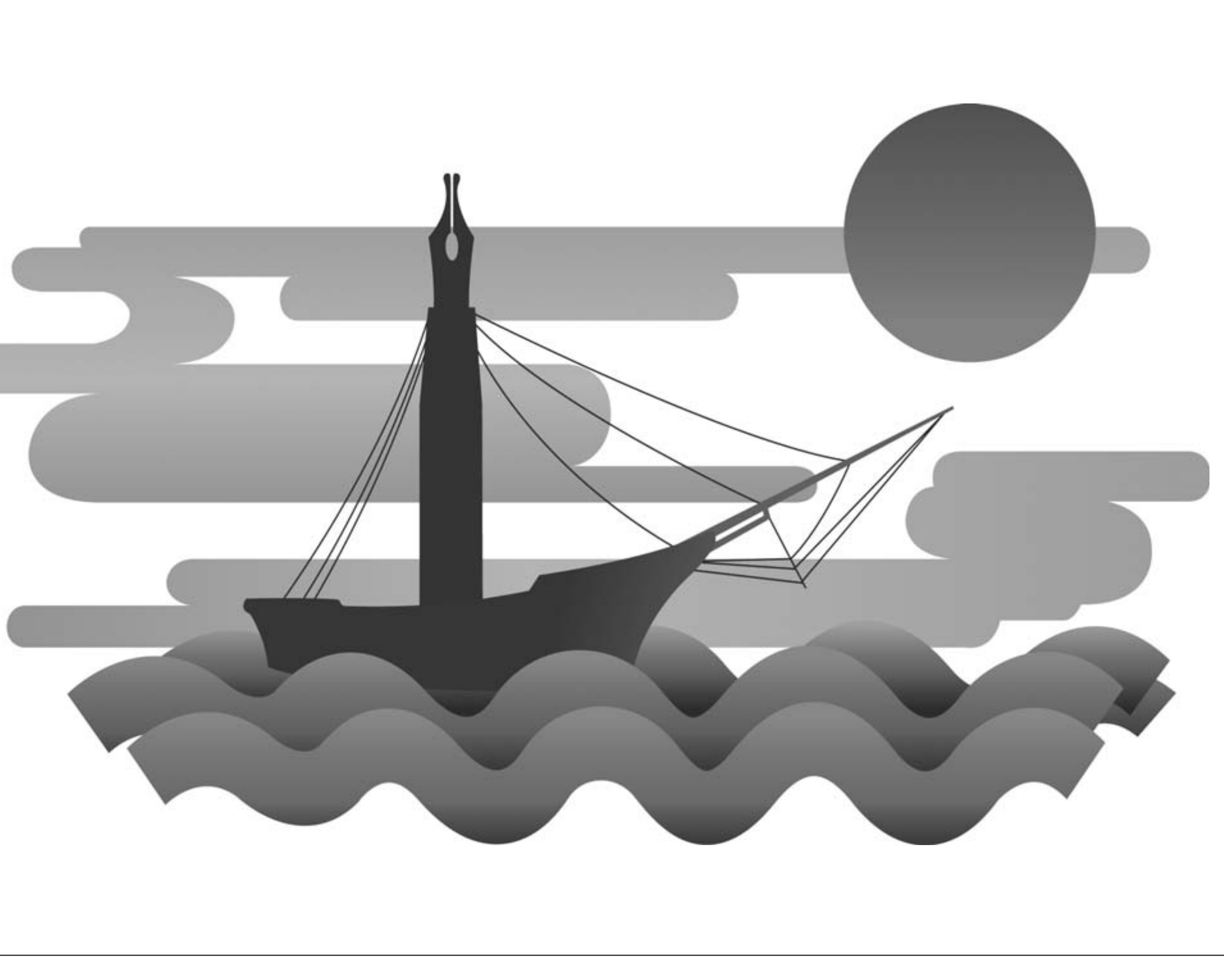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들은 자신만이 민주당의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외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예리한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한편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친명계' 후보들이 약진하면서 누적 득표율에서 박선원 후보가 최민희 후보를 역전했다.

경선이 열렸던 15일, 호남에서 승기를 잡은 김민석 후보는 23일 현재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수석 최고위원이 되었고, 이성윤·한민수·서미화·박선원 의원도 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에 입성했다.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사내 · 외 기고 및 칼럼은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